

# 의상에 표출된 신체부재의 의미 연구

-성 정체성의 부재를 중심으로-

박현신\* · 금기숙

덕성여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예술학과 교수

20세기의 의상은 크게 모더니즘 의상과 포스트 모더니즘 의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더니즘이 전통양식에 대한 반항과 새로운 조형미의 모색에서 출현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반성하며 또 다른 조형미를 추구하며 등장했다. 이것은 신사고를 기반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여, 우리 주변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해석도 남성, 여성, 이상적인 인체미 등에 따른 물리적이거나 획일적인 해석을 초월하여 다양한 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 유형의 인체도 수용하는 파격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제의 피부인 의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양식의 출현, 해체주의 의상의 수용, 성 정체성에 대한 무관심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복잡하게 세분화되면서 인체가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의상에서 성 정체성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현대 의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현대 의상은 신체를 중심으로 한 형태, 구조, 기능, 의미 등이 존재하는 의상과 이들 요소가 부재하는 의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재를 해체의 중심 개념으로 볼 때 현대 의상에서 의상의 주체인 신체의 부재는 어떻게 나타나 있고, 부재된 신체를 통해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더 큰 신체(Meta-body)의 의미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의상이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가지며 신체를 대변하는 물질적 대상이며 기호인 점에 주목하여, 신체의 부재가 강조되면서 성 정체성이 부재된 의상 작품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의성의 기초체계를 가진 의상은 그레이미스의 기호사각형에 의한 기호학적 접근 방법으로 의미의 분석이 가능하다.

의상은 시각적 자아를 지닌 시각예술의 한 형태로 인간의 이미지나 의미를 표현하는 전달체의 기

능이 내재되어 있다. 모더니즘 의상은 객관성과 논리적인 필연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사고와 해부학을 기초로 하여 상하좌우가 있고 이상적인 인체의 비례를 고려하여 신체를 존중하는 사고를 표출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관습화된 성의 특성을 부각시켜 왔다. 반면에 해체적 사고는 관습적인 인체 즉 실존하는 신체를 초월하여 신체의 부재를 중심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의상의 형태, 표현 기법 등에서 성 정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현대 의상에 나타난 원형이 부재한 의상, 신체가 부재한 의상, 성의 정체성이 부재한 의상은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정의된 성(Gender)에 대한 혼돈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적 구별이 불가능한 의상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의 기초와 사회적 질서의 거부는 Transvestism이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Genderless의상으로 표현되었다. 앤드로지너스 룩도 자신의 성을 인정하면서 상대의 성적 특성을 교차시켜 통합된 신체, 이상적인 인간인 전체성(Wholeness)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신체 부재의 예는 1) 사회, 문화적으로 정의된 성에 대한 혼돈으로 남녀 구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성 정체성의 부재, 2) 조화된 전체성의 부재, 3) 형태의 부재, 4) 의미의 부재로 분류된다.

이러한 의상들은 성의 이분법에 의한 고정된 고전적인 신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신체를 인정하고자 하며, 나아가 성의 부재를 통해 성의 원형을 부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모양의 성의 이미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현대 의상은 사회·문화적으로 확고하게 정의되었던 관습적인 성(Gender)의 개념은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신체에 대한 재해석과 제3의 성에 대한 수용을 시사하며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